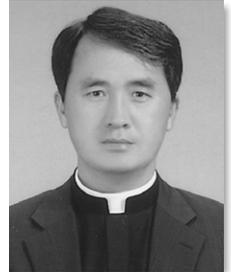


주일의말씀

만남



하창호 가브리엘 신부
5대리구 사목국장

:: 만나기 전

나는 자캐오입니다. 비록 키는 작고 볼품없지만 재산을 모으는 데는 재능이 있나 봅니다. 나의 뛰어난 사업수완으로 목이 아주 좋은 예리코의 세관장 자리도 차지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돈 모으는 일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로마제국의 앞잡이라고 나를 죄인 취급하는 동족들이 거슬리긴 합니다만, 로마인 관리들을 친구로 두고 있으니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갈릴래아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예언자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를 랍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양반의 말과 행동들이 예사롭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받는 나와 같은 사람들과 즐겨 어울린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 만남

그런데 그 양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인지 무척 궁금하던 차에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귀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쩍니까? 그 양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나는 키가 작잖습니까? 뒤통치를 들어도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길 옆에 있던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양반일까?’ 궁금해 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이미 내 이름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하마터면 나무에서 떨어질 뻔 했습니다. 더 놀랄 일은, 그분께서 우리집에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소문대로 파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그분께서는 이미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초대하기도 전에 그분께서 나를 초대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 만나고 나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찮게 보입니다. 온갖 떨시와 냉대를 받으면서도 재산을 모으기에 급급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일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초대해 주시는 이분과 함께 머무는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어느새 나는 끌어모으는 사람에서 나누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생명의말씀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루카 19,10
지혜 11,22-12,2 2테살 1,11-2,2 루카 19,1-10.

5. 주님께서 집을 아니 지어주시면 - 2

문화홍보실

김 보록 신부님과 교우들이 실망을 극복하고 소실되어 버린 첫 번째 성전에 이어 지은 성당은, 그저 당장 성전이 필요하니까 어떻게든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구대성당이라고 불렀던 이 성당은 그 시절에는, 더욱이 지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큰 역사였습니다. 불타버린 원래의 목조 기와집 성전 건축도 당시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힘에 겨운 일이었지만, 이번의 벽돌 성당은 그야말로 신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이 성당을 짓기 위해 중국에서 기술자들을 초빙하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짚어내어, 대구 최초의 서양식 건물을 고작 2년 남짓 만에 완공했던 것입니다. 신부님과 교우들은 단단히 마음먹고 지난 번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성당을 굳이 지었던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그 시절에, 그렇지 않아도 이미 한 번의 성전 건립으로 돈도 부족했을 터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당은 일반 건물과는 다릅니다.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곳이고, 하느님 백성이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상 제사가 바쳐지고, 교우들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집은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모퉁잇돌이 되

고 우리들 하나하나가 그 벽돌이 되는 살아있는 성전의 표지입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집이 바로 성당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들은 축복을 하지만 성전은 봉헌한다고 말합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김보록 신부님과 신자들은 하느님께 바칠 제물을 당신께서 몸소 마련해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엄두를 내었던 것입니다. 신부님과 교우들은 주님의 섭리에 의탁하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의 증표를 세워 바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인 1903년 11월 1일, 마침내 성당이 완공되어 루르드의 성모님을 주보로 모시고 뫼텔 주교님의 주례로 성대한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성당을 증축한 것이 바로 지금의 계산 주교좌성당입니다. 사실 고색창연하고 아름다운 건물보다도, 당당한 규모나 연륜보다도 더 뜻 깊은 것은, 그 어렵던 시절에 하느님의 섭리 하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 몸을 건설하는 큰 공사에 벽돌이 되어 자신을 기꺼이 바쳤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지금 우리 마을에, 모두가 보는 앞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31주일

입당성가

4 찬양하라

화답송

◎ 저의 임금 하느님, 영원히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178 성체 앞에

영성체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
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파견성가

6 찬미노래 부르며

영성의 향기

:: 하느님과 보내는 조용한 시간

평화를 주시는 하느님과 내면적인 관계를 유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하느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그 사랑에 빠질 수 있다면 인생이 뒤바뀔 것입니다. 하느님과 은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으로,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 하지 않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상에서 보여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끼리는 형제자매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려 들어도, 사랑하시던 제자가 당신을 배반하려고 해도,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으시고 당신 자신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점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에게 미움 받으시고 상처를 입으시고 거절당하실수록 더 큰 사랑과 용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만 우리와 함께 계시며 당신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백구

- 교구 사목국 권가타리나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제 2차 세계대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수용소에 잡혀간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몸이 아주 약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병약한 사람부터 먼저 죽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매일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허약하다는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아이는 감시원이 끌고 가려 하자 울며 발버둥 쳤습니다. 어머니는 “야야, 울지 마라. 엄마가 같이 간다.” 하며 아들을 품에 안고 함께 가스실에 들어갔습니다. 자식이 홀로 죽으러 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 어머니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 대신 목숨을 바치신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사 49:15)

- 옮겨온 글입니다 -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1.3(수)은故 박병원(필립보)신부 8주기입니다.

- 위령의 날 묘원 미사 -

교구 성직자 묘지

• 일시: 11.2(화) 10:00, 집전: 교구 사무처장 신부
군위 묘원

• 일시: 11.2(화) 11:00, 집전: 교구 관리국장 신부
범물동 묘원

- 모임 / 행사 -

가톨릭 사진가회 창립 10주년 사진전

• 일시: 11.1(월)~5(금), 성모당
해평 철새도래지 순례 및 생평영화미사

• 일시: 11.8(월) 14:30
• 장소: 구미시 해평면 해평취수장앞 낙동강독방

대건 자율형 사립고 입학 설명회(2차)

• 일시: 11.9(화) 19:00
• 장소: 대건고등학교 대건관

• 대상: 중3학부모 및 학생
• 문의: 대건고등학교 631-9681

제13회 대구대교구청학생활성가 경연대회

• 일시: 11.13(토) 19:00
• 장소: 대구광역시 청소년 수련원

• 문의: 1대리구청 청년담당 426-7219
1대리구청 사무실 426-7200

세계 청년 대회 참가 신청

• 일시: 2011.8.11(목)~24(수)
• 장소: 스페인 마드리드

• 신청마감: 12.31(금)
http://club.cyworld.com/2011wyd

- 성소 / 피정 -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성소모임

• 일시: 11.6(토) 16:00~7(일) 14:00
•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 대상: 고등학생이상-만31세이하 미혼남성
• 문의: 010-8353-2323

한국의방선교회 성소모임

• 일시: 11.7(일) 11:00, 서울 본부
• 문의: 010-4555-7526(kmsvocation@daum.net)

올리베라도 성 베네딕도 수녀회 해바라기 가을피정

• 일시: 11.13(토) 17:00~14(일) 15:00
• 장소: 부산 성분도 은혜의집

•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 문의: 010-9510-1131

예수의꽃동네형제회자매회 성소자 모임

• 일시: 11.14(일) 14:00~17:00, 서울사무실
• 대상: 대학~35세 미만

• 문의: 011-464-1265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성소모임

• 일시: 매달 첫째 주일 14:00, 대구이곡동 수녀원
• 문의: 587-2898 / 016-570-0939

※ 성소상담문의 언제나 가능(http://www.fmmkor.org)

- 모집 / 교육 -

2011학년도 교구내 유치원 원아모집 안내

대구대교구 홈페이지(www.dgca.or.kr) 참조
제16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안내

• 일시: 11.6(토) 15:00~21:00 매주 토(6주간)
•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강당, 마감: 11.2(화)

• 신청문의: 641-5678
2011학년도 호성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 전형일자: 11.15(월)~19(금) 09:00~16:30
• 자격: 2004.1.1(목)~12.31(금) 사이에

출생한 대구광역시 거주 아동
• 방법: 아동 및 학부모 면접 후 컴퓨터 추첨

• 문의: 636-1346(http://dg-hyoseong.es.kr)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제3기 제대꽃꽂이 강좌반 모집

• 신청: 10.17~11.7(일), 11.23(화) 개강
• 1년과정: 기초반, 전문기반, 연구반

•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문의: 010-5156-8226 / 010-5501-4042

가톨릭근로자회관 필리핀 영어 캠프

• 일시: 2011.1.2(일)~30(일)
• 장소: 마닐라 St. Joseph College

• 대상: 초 3~중 3 (선착순: 20명)
• 특징: 현지초등선생님 직접 수업

• 문의: 253-1313 / 010-9355-5843
성바로안나녀의집 어르신 모집

• 입소대상: 80세 이하의 어르신으로서
신변자립이 가능한 노인(여성)

• 입소비용: 생활비 월4십만2천원(보충금백만원)
• 입소구분: 1인1실, 2인1실

• 문의: 054)382-1634
충주성모학교 학생 모집

• 대상: 시각장애 교육을 희망하는
유~고등학교(재활과정)

• 접수: 10월~12월(항시상당)
• 특전: 맹아원입소, 취업, 대학진학 등

• 문의: 043)852-1374
- 직원 채용 -

- 직원 채용 -

학교법인 선목학원 교사 및 기간제교사 모집

• 기간: 11.3(수)~5(금)
• 문의: 660-5161

※ 자세한 사항은 교구홈페이지 참조
(http://www.dgca.or.kr)

- 안 내 -

교구법원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
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
이 있습니다.

• 성명: 김영호(마태오), 안연옥(임마누엘라)
2011년 대구주보 광고 접수안내

• 일시: 11.8(월) 09:00, 교구청별관 1층 대화합실
• 서류: 1.사업자등록증사본 2.교적사본

3.본당신부님추천서 4.사회복지 관련
사업체인 경우 추가로 교구 사회복지

회 국장신부님추천서 5.광고문안
• 광고료: 1회 12만원, 대축일 15만원(전액 선금)

• 참조: 사업주가 냉담자이거나 교구 신자들
의 유익을 해치는 광고는 게재 불가함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말알후원회 및 시각장애인선교회 월례미사	11월 1일(월) 오전11시	계산주교좌성당	한국SOS어린이마을 후원회 월례미사	11월 3일(수) 오전11시30분	한국SOS어린이마을 2층강당
5대교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일(월) 오전11시	신평성당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11월 4일(목) 오후2시	성모당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일(월) 오전11시	성동프리텔413호	미하의 미사	11월 5일(금) 오후 2시	성모당
꾸르실리스타 월례미사	11월 1일(월) 오후7시30분	꾸르실리스 교육관	성도의 기사회 미사	11월 6일(토) 오전 10시	월배성당수도원
지속적인성체조배의 미사	11월 1일(월) 오후10시	한티순례자의집	푸른군대 첫 토요일신심미사	11월 6일(토) 오후 2시	성모당

연세소아발달연구소
(아동, 청소년, 성인, 가족치료센터)

복자유 치료비 지급(비우려 제도)
매월 1인당 128,000~220,000원 차등 지원

*심리, 놀이, 미술, 음악, 언어, 학습치료ADHD 등
소장 조옥희(하네스) / 652-9000

카리타스 요양센터
Caritas LONG TERM CARE CENTER

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
1577-9913 / 636-5567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요양보호사교육원
053)255-7222 교구청(성부)새 교육원 가평동

365 HOSPITAL
365 병원

삼육오
관절경 인공관절 수술전문병원
위치:비산네거리구 경상여성 맞은편
☎ 053)720-0320, 720-0365

원장 우병철 안도니오
원장 안혁수 베네딕도

광천 이조맛김

대표 이 경 숙 (모니카)
☎041)641-3838, 011-504-5810

오월의정원
wedding culture

세상에 하나뿐인 로맨틱드레스
결혼·돌·회갑·기업행사

중구 문화동 대구시센터(구. 밀리오예)
예약문의 664-7000
www.maygarden.kr

자 금 성
중국요리관리전문서당

늘 처음처럼... 최고급 재료를 고집합니다.
2007ISO9001-2000 품질관리인증업소
☎ 767-6700

• 수성구 황금동 국민은행 옆 •
정 경 숙(스텔라) 황 기 절(요한)

악손 척추 교정원

디스크·비만·신경통
근골격계, 신경계질환
지압, 교정, 자세, 체질검사

29년 전통 이 루카 425-7695
대구역 옆 라이프 상가 245-1호
www.m-hand.co.kr

●신속하고 간편한 대출
-이파트, 트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출-

●높은 수익과 안전한 예금

유니온 저축은행
(www.kusb.co.kr)
TEL : 256-1122
대표이사 박판희(안토니오)